

일행 12명이 식당 테이블 3개 나눠 앉기도 안됩니다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어떻게 달라지나
숙박시설 파티 금지·예약 50% 제한
종교시설 예배·법회·미사 비대면 원칙
시민 불편...빈사 상태 자영업자 타격

정부가 22일 확정, 발표한 연말연시 코로나 19 특별 방역 대책 시행에 따라 지역민 불편과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5인 이상 식당 모임 금지, 해맞이·해넘이 명소 폐쇄 조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지역 경제 바닥을 받쳐온 식당 등 자영업자는 빈사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식당·카페·백화점·영화관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시민 불편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이날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0시부터 신정 연휴가 끝나는 3일 자정까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모임과 여행 등이 폭증하는 연말연시가 코로나 19 대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해, 바이러스 전파 통로가 되는 이동과 접촉을 최대한 억누르려는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시민 다수가 찾는 종교시설·식당·파티룸·영화관·백화점·스키장·관광명소·호텔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행 12명이 4명씩 3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내려진 기존 방역 수칙에 더해진 것으로, '밤 9시-새벽 5시 식당 포장·배달만 허용' 등 기존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영업금지)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빌려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송년회 등을 즐기는 곳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한다.

전국 영화관은 모두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매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숙박 시설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에 대해서는 강력한 금지 권고가 내려졌으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는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도록 했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팅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특별 방역 기간 문을 닫는다. /김형호 기자 khh@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부 요인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언급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접종 시작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서민들의 민생도 어렵다"면서도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가고,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5부 요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 국경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그 와중에 사회적 통

합도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증가해 방역을 책임진 중대본부장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지금 이 피크(정점)이기를 중심으로 비관"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법시스템이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 소홀하지 않음지 점검해야 한다. 소송 제도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필수 조건"이라고 언급했으며 노경희 중앙선관위장은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절차적 정당성 여부 판단 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은 이날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해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심문에 윤 총장은 불참했으며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용 변호사, 법무부 측 이우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2차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고 보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 외에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인 반면,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법무부 측 이우형 변호사는 심문 뒤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

은 질문들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그동안 열람 등사 신청이 거부됐던 자료들이 대부분 오늘 제출된 것 같다"며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설명을 더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에 추가로 질 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심문에서 양측은 정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12월 24일 0시~2021년 1월 3일 밤 12시

<p>종교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p>백화점·대형마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p>식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이상 모임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 제외) 	<p>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팅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 금지
<p>영화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후 9시~익일 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p>숙박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금지
<p>공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 두 칸 띄우기 	<p>관광명소·국공립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쇄 및 방문객 접근 제한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정인롭고 풍요로운 광주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518

5·18민주화운동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민주와 인권, 평화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얼굴입니다.